

작은 것에서의 아름다움

김강석 / SBS-TV 보도국 차장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기대 속에 취임하던 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유료 주차장은 그 전날 9시부터 취임식날까지 폐쇄됐다.

하지만 몇일 전부터 주차장에 내걸린 방은 매우 고압적이었다. 대통령취임식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하니 이 기간 동안 정기 주차자들은 모두 차를 빼라는 명령(?)이었다. 자동차를 원호대교쪽 주차장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견인하겠다는 경고도 이어져 있었다.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을 폐쇄하니 양해하시기 바란다는 의례적인 문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달간 정기 주차권을 끊은 사람들은 서슬 퍼런 경고 앞에 서둘러 차를 뺄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안내문에는 몇 천원에 달하는 하루치 주차료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다. 대통령의 취임식이니 그 정도는 포기하고 협조하라는 암묵적인 강요마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참여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여러 부문은 과거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 채 정치적 혹은 문화적 지체현상(cultural lag)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몇년전 미국 뉴욕에서 생활할 때 뉴욕 타임즈를 구독한 적이 있었다. 한달 치 선불을 개인수표로 보내주면 신문이 오기 시작해 한달이 다되기 열흘전 쯤엔 다음 달치 구독을 권유하는 우편물이 오는데 이듬해 귀국을 하게 돼 신문을 끊게 되었다. 구독 해지를 알리는 편지를 미리 보내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뉴욕 타

임으로부터 우편물이 왔다. 거기엔 "구독자께서 마지막 한달 가운데 열흘지만 신문을 보셨으니 한달 구독료 24달러 가운데 14달러를 반환하오며 다시 기회가 닿으면 뉴욕 타임즈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이 정중히 적혀 있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였다. 계약한 날보다 한달 여를 앞당겨 해지를 한뒤 귀국하고 나자 역시 그 차액을 돌려주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우리 사회에선 익숙치 못한 경우라 앞선 사회가 다르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사소한 것에서 소비자와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려는 정신과 태도는 곳곳에서 역력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혁 바람도 이 데올로기적 구호보다는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뿌리 내리게 할 때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을 빙자한 또다른 권위주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끝내 저항을 받고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소한 것에서의 즐거움이나 작은 것에서부터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큰 소리 내지 않으면서 내실 있는 개혁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곰씹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PPKK